에이스 빠진 광주·사령탑 이탈 울산 '누가 웃을까'

광주FC, 울산HD와 K리그1 2024 22라운드 원정 경기
엄지성 유럽행에 전력 누수…울산 홍명보 감독 고별전

광주FC가 10일 울산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울산HD를 상대로 K리그1 22라운드 원정경기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 5월 울산과의 홈경기에서 최경록(오른쪽)이 마틴 아담과 공중볼을 다투는 모습. 〈광주FC 제공〉

에이스와 사령탑의 이탈 악재를 만난 두 팀이 울산에서 만난다.

광주FC가 10일 오후 7시 울산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울산HD를 상대로 K리그1 2024 22라운드 원정 경기에 나선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 승리가 간절한 두 팀의 대결이다.

갈길 바쁜 광주는 엄지성의 스완지 시티행이 확정되면서 전력 누수가 발생했다. 그리고 7일 강원FC 원정에서는 득점에 실패하면서 0-2패를 기록, 8위로 내려앉는 등 '결정력' 고민에 빠졌다.

선두 탈환을 노리는 울산은 졸지에 사령탑 없이 순위 싸움을 벌이게 됐다.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선임되면서 광주전이 고별전이 될 전망이다.

연달아 조명을 받은 두 팀의 대결인 데다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감독 선임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맞대결이 됐다. 홍명보 감독이 약속을 뒤집고 시즌 도중에 울산 지휘봉을 내려놓게 되면서 성난 울산 서포터즈들의 움직임까지 예상돼 울산문수월드컵경기장에 축구팬들이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울산이 앞선다.

선두 싸움을 하고 있는 울산은 여름 이적 시장에서 국가대표 주전 미드필더 정우영을 영입했다. 또 올 시즌 9골 1도움을 기록한 강원 출신의 브라질 공격수 야고의 영입도 확정을 하면서 전력 강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최근 전적으로는 광주가 앞선다. 광주는 지난 5월 15일 울산과의 홈경기에서 박태준과 이강현의 골로 2-1 승리를 거두는 등 최근 울산전 3연승 중이다.

원정 열세를 지워야 한다. 광주는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만 7패를 기록했다. 불안한 수비로 어렵게 경기를 풀어가는 등 경기력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앞선 강원전에서도 광주 진영에서 공을 뺏기며 실점을 하는 등 아쉬운 수비로 0-2패를 기록했다.

'체력'을 문제점으로 꼽은 이정효 감독의 선수들에게 휴식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정효 감독은 용병술도 중요하다. 광주는 무더운 날씨 속 14일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 17일에는 코리아컵 일정까지 소화해야 한다. 이정효 감독은 수비 안정화를 위해 베테랑 안영규와 이상기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세밀한 공격도 필요하다. 광주는 앞선 강원전에서 슈팅과 유효슈팅에서 우위를 점했지만 득점에 실패하면서 승점을 더하지 못했다.

가브리엘과 이희균이 공격 전면에서 승점 사냥을 이끈다.

부상에서 돌아온 이희균이 중원을 휘저으면서 공간을 만들면 가브리엘이 그 틈을 파고들어 슈팅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가브리엘의 변칙 드리블과 크로스 그리고 과감한 슈팅은 상대를 위협하고 있다.

앞선 경기에서는 골운이 따르지 않았다. 가브리엘이 오른발, 왼발 그리고 머리로 시도한 슈팅이 모두 유효슈팅으로 기록됐지만 골키퍼 이광연의 호수비에 막혀 득점에는 실패했다.

출전 시간을 늘리면서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는 신창무와 울산전에서 두 골을 기록하고 있는 이강현도 골대를 겨냥하고 있다.

광주는 울산의 주민규와 엄원상을 경계해야 한다. 7골 4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주민규는 울산 공격의 핵심이다. 빠른 발을 이용한 돌파와 매서운 슈팅을 보유한 엄원상은 앞선 친정 방문에서 골맛을 보기도 했다.

광주가 어수선한 울산 안방에서 원정징크스를 깨고 승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박주호, 홍명보 선임 과정 폭로

전력강화위원 활동…축구협 "비밀유지서약 위반" 법적대응 검토

차기 축구대표팀 감독을 결정하는 과정에 난맥상이 있었다고 폭로한 박주호 축구 해설위원에 대해 대한축구협회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9일 "박주호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라며 폭로한 것은 비밀유지서약 위반"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박주호는 지난 2월 20일 정해성 감독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력강화위 위원을 맡아 약 다섯 달 동안 차기 사령탑을 찾는 작업에 참여해왔다.

정해성 감독이 지난달 말 위원장직에서 전격 사퇴하면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사령탑 선임 작업을 7일 마무리 지었다. 결론은 홍명보 울산 HD 감독이었다.

많은 팬이 바라던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 감독이 사령탑에 오르면서 비난이 빗발친 가운데 박주호는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캡틴 파추호'에 전력강화위를 비판하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박주호는 "국내 감독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위원들이 많았다. 어떤 외국 감독을 제시하면 무조건 흠을 잡았다"고 폭로했다.

또 "그중에는 본인이 임시 감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도 있었다. 전체적인 흐름은 홍명보 감독을 임명하자는 식으로 흘러갔다"고 말해 팬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3월 A매치 기간을 앞두고 황선홍 당시 23세 이하(U-23) 감독을 임시 사령탑으로 세우는 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화 없이 투표로 결론이 정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위원은 자신이 홍 감독 내정 사실도 몰랐다며 "지난 5개월이 허무하다. 전력강화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절차 안에서 이뤄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축구협회는 박 위원의 폭로 내용은 일부 근거가 없는 주장이거나 외국인 감독을 원했던 자신의 시각에서 왜곡되게 현실을 인식한 결과라며 반박한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5명의 감독 후보까지 위원회가 추천하면, 다음 과정은 위원장이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박주호 위원이 한국 축구를 위해 뽑고 싶었던 감독상과 다를 수는 있으나, 이것을 절차상 잘못되었다고 경솔하게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축구협회 내부에서는 박 위원이 언론이 아닌 자신의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개인 유튜브를 통해 폭로한 점도 문제 삼아야 한다는 분위기다.

박주호는 지난 4월 2일 축구협회와 전력강화위 위원 활동과 관련한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했다.

서약에는 '본 회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고 돼 있다.

박주호의 행동이 독립 기관으로 만들어진 전력강화위 체제의 근간을 흔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SINCE 1952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국내파·해외파, 알프스 산맥서 '샷 대결'

LPGA 에비앙 챔피언십 11일 개막
여자 PGA 챔피언십 우승 양희영
KLPGA 3승 이예원 등 18명 출전

양희영

이예원

국내와 미국에서 활약하는 한국여자프로골프의 정예 멤버들이 이번 주 프랑스 알프스 산맥으로 집결한다.

오는 11일부터 나흘간 프랑스 남동부의 휴양지 에비앙 레뱅의 에비앙 리조트 골프클럽(파71·6523야드)에서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네 번째 메이저 대회인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이 열린다.

LPGA 투어 베테랑 양희영이 지난 달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을 제패하면서 이번 시즌 우승에 대한 갈증을 풀었다.

이번 주 대회에는 양희영을 비롯해 2019년 우승자 고진영, 2014년 우승자 김효주, 유해란 등 LPGA 멤버에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맹활약을 펼치는 이예원, 박지영, 황유민까지 가세해 모두 18명의 한국 선수들이 출전한다.

이예원은 이번 시즌 3승, 박지영도 3승을 올리며 절정을 기량을 뽐내고 있다.

황유민도 1승을 포함해 출전한 대회마다 고른 성적을 거두며 KLPGA 상금 5위에 올랐다.

지난 5월 일본여자골프의 메이저 대회 살롱파스컵에서 아쉽게 준우승했던 이예원은 "우승은 못했지만 많은 것을 배웠다"며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 에비앙에 출전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국의 정예 멤버들과 우승을 다툴 선수들로는 작년 대회 우승자 셀린 부티에(프랑스)를 비롯해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르다(미국), 허리 부상에서 돌아와 지난 6월 마이어 클래식에서 우승한 릴리아 부(미국)가 꼽힌다.

또한 올해 US오픈을 제패한 사소 유카(일본), 2021년 에비앙 대회 우승자 이민지(호주)도 출전한다.

다만 이번 시즌 LPGA 투어에서 무려 6승을 올린 코르다는 지난달 개 물림 사고를 당해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

'김택수배 생활체육 전국오픈 탁구대회' 13일 개막

광주여대서 단·복식·단체전 등

'제9회 김택수배 생활체육 전국오픈 탁구대회'가 오는 13일 광주여대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광주시탁구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개인단식(6개리그), 개인복식(3개리그), 단체전(3개부)으로 진행된다.

경기는 오전 8시30분에 남자 3부리그(7부 전체), 오전 9시에 남자 2부리그(5-6부)·남자 1부 리그(0-4부), 오전 9시30분에 여자 2부 리그(6부), 여자 1부 리그(1-5부), 오전 10시50분에 남·여 본선 리그 순으로 펼쳐진다.

이어 오후 1시부터 초심자 리그 및 본선리그, 오후 2시 개인복식 경기와 오후 4시 단체전이 치러진다.

이날 오후 3시에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미래에셋증권 정영식 코치와 박규헌의 식전 시범경기를 시작으로 광주시탁구협회 진미덕 부회장의 개회선언, 대한탁구협회 김택수 실무부회장의 공로패 증정, 경품 추첨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즐거운 문화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오페라단 제15회 정기공연 | 콘서트 오페라
가족 오페라 〈신데렐라〉
일시 : 2024-07-26(금) 19:30
2024-07-27(토) 15:00, 19:30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 2
문의 : 062-412-2502

광주시립교향악단 오티움 콘서트 Ⅲ 〈Romantic〉
일시 : 2024-07-18(목) 11:00,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41